

출판 유통현대화 및 업무전산화 사업 가시권 진입

출판계 공익 위해 정부 지원 이끌어내

출판사들의 적극적 참여 아쉬워

출판 유통현대화 관련 사업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유통, 북새통 등 출판 유관단체와 유통업체들이 업무전산화를 위한 ERP(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업체간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유도할 통합 브라우저 서비스 개발, 유통도서 DB를 포함한 출판 e-마켓 플레이스 정보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여러 업체가 프로그램을 중복 개발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물밑에서 논의돼왔던 출판계 전반의 e-비즈니스화가 대략 세가닥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업무전산화를 위한 ERP(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업체간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유도할 통합 브라우저 서비스 개발, 유통도서 DB를 포함한 e-마켓 플레이스 정보망 구축이 그것이다. 출판산업의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이 프로젝트들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북새통, 한국출판유통 등 4개 출판관련 업(단)체가 개별적으로, 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판 유관단체와 유통업체들이 동시에 나서 각축전을 벌일 이번 프로젝트들의 공통 목적은 전근대적인 출판유통 관행과 업무방식을 현대화하겠다는 것. 계획대로만 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3년 이내에 출판업 전반의 e-비즈니스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판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에 박차 가해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출협 산하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위원장 나춘호)다. 위원회는 지난해 출판계, 도매유통업계, 서점업계

사장단이 모여 '출판유통현대화'의 필요성을 결의한 후,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기획함으로써 결성됐다.

전체 사업 예산이 60억원(문광부 30억원 지원, 민자 30억원 유치)이고 3년 동안 진행될 이 사업의 목표는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도서유통 구조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상태를 해소하고 첨단 정보화 시대의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윤청광 단장(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출판계(2), 도매업계(1), 서점업계(4), 잡지계(2), 학계(1), 정보기술계(2), 도서관계(1), 정부(1), 간사(2)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매주 회의를 열며 사업기반 다지기에 한창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도서 상품의 코드와 분류 체계 및 MARC 등 각종 표준화 사업, 유통도서 DB 개발 및 도서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유통정보 DB 구축, 도서거래 시스템 개발, 출판산업 정보관리 시스템, 경영정보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 구축 및 종합 포털시스템 개발 등 7가지로, 이 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차년도(2001) 사업을 시작해 총 30만권의 유통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현재 1차년도 사업비가 남아 추가사업으로 B2B 마켓 분석

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유통현대화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저 장영필씨는 이번 사업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형서점들이 직영체인을 넓혀가고 대형도매업체들이 가맹체인을 확장하면서 중소형서점과 소도매상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이런 중소형 서점들이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범위하게 협업함으로써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소수의 '메이저' 들은 혜택이 적고, 다수의 '마이너' 가 큰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렇다고 배타적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장씨는 덧붙인다. 현재 유통되거나 개발하고 있는 다른 업체나 단체의 소프트웨어도 분석해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무상자금을 지원받은 공익사업인 지라 업계 전체가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앞으로 3차산업(2003년)은 문광부 지원금 8억원, 민자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간자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는 밝힌다. 또한 개발에 참가한 각 단체와 기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 끌어내려는 노력 기울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자적 자원관리)는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고정자산 등 전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기업 리엔지니어링 기법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 기업 체질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올해 1월 ERP 공급사 한맥인포텍(대표 이시현), 동국출판판매(대표 김영철), 출협 등 25개 사·1개단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자부 지원 B2B 시범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했지만 일반 제조업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이번이 2차 시도인데 3월초 발표에서 채택되면 전체 사업비의 60~70%에 해당하는 약 25~3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는 한맥인포텍 강대웅 팀장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출판산업 전반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온라인 수발주, 업체간 메시징 교환기술 개발 등 유통업 무부터 개별 출판사의 자체정보화 및 출판업 종의 특징적인 외주관리 등의 모듈을 추가해 업종에 맞는 ERP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맥인포텍은 이 사업말고도 동국출판판매(산업자원부 지원)와 출판물류센터(중소기업진흥청 지원)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올 중순쯤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강팀장은 "출판사들의 정보화 의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워낙 유통체계가 복잡하다보니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판업 전반의 영세성도 더해져 컨소시엄 참가율이 많이 낮았다"며 "유통업계와 출판사들이 호흡을 맞추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국 2백여개 중대형 오프라인 서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서점 네트워크 복재통도 '서점-복재통-출판사' 간 온라인 전산망 구축을 골자로 '산자부 지원 B2B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제일서적 외 141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김영사, 푸른숲, 바다출판사, 열림원, 사계절 등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도 대거 참가했다.

상용화 단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해

한국출판유통(대표 홍승대)은 거래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서점과 출판사가 한국출판유통이 개발한 전용 브라우저에 접속해 주문정보를 입력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서점쪽은 개발이 끝나 지난해 4월부터 전산망을 구축해 온라인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총 1천5백여 거래 출판사에도 관련 소프트웨어를 배포

할 생각이다.

한국출판유통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의 도매대행구조에서 발생하는 재고부담, 물류비 부담, 출판사-서점 직거래 비중의 상승 등 위기요인들을 다개하려는 내부적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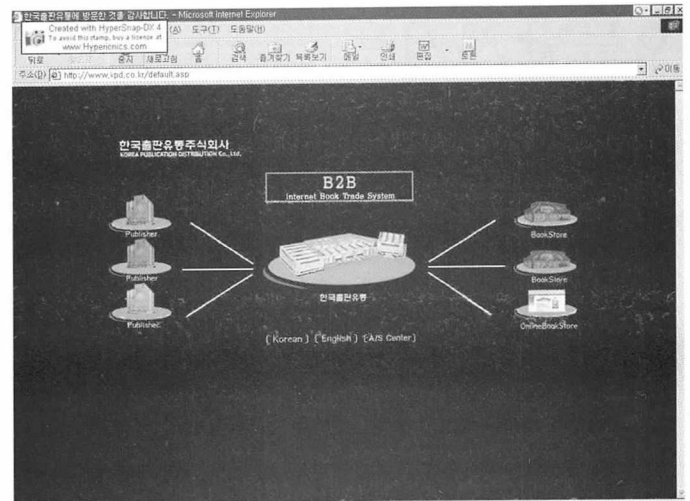
한국출판유통 이중호 부장은 "유럽 유통계를 보더라도 도매상들이 적극적으로 유통현대화를 주도했다. 서점 및 출판사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유통업체가 사업의 주체가 돼야, 개발 프로그램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가능하고 실무에 부딪힐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보화 의지 부족한 출판사 많아 어려움 예상돼

위에서 거론한 사업 외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지방 직영체인을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내부전산망이나 고양시의 화정문고, 을지서적, 동국출판판매를 인수한 리브로의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런 출판업 전반의 통합 전산망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다. 출판사-제지업체-인쇄소 등으로 전산망이 통합됨으로써 출판사는 제작비를 절감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계화된 시장조사자료가 점진적으로 축적됨으로써 출판기획을 강화하고, 초판부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서점에서 넘겨받은 마케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매량을 예측함으로써 반품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유통현대화 사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이런 유통현대화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



업체간 공동전산망 구축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출판유통의 홈페이지.

가 다른 업체나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 출판계 전체로 볼 때 중복투자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개별 출판관련 업체들의 정보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업계를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영필씨는 "개발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 다만 출판계 전반에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우려된다. 지금은 원-원식의 사고가 필요할 때다. 범출판계의 뜻을 모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던 초심을 잃지 말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화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성민기자